

上流 傳統住居 海南 綠雨堂의 解釋

- 居住者 生活과 農業經營으로 -

이 희 봉 (중앙대 건축공학과 교수)

이 향 미 (조선대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1. 시작에

1-1 전제

이 연구는 기존 건축학의 주류 연구와는 다르게 상류전통주거를 외부인 중심이 아닌 내부 거주자 중심으로, '이해'하려는 것이다. 건축학 연구자의 학문적, 또는 과학적 배경의 외부인 관점을 가능한 배제하고 내부 거주자 관점에서 집을 파악할 때 바른 '이해'가 가능해진다는 전제를 갖는다.¹⁾

또한 이 연구는 물체 형태를 넘어서 거주자 생활중심으로 사물과 공간을 이해하려는 것이다. 원래 우리말 '집'은 거주자의 삶과 물체로서의 집이 통합된 말임을 유념한다.

시간상 현재 보이는 형태를 넘어서 과거의 전통 상황으로 돌아가 그 속에서 이 집을 복원하여 이해하고자 한다. 기존 주거연구의 알려진 일반적 이론, 즉 유형론이나 민가/반가의 전통주거원리의 일반론을 넘어서 이 집의 특수해를 찾고자 한다.

1-2. 대상과 방법

1) '내부인 관점'이란 문화인류학적 개념으로서, 관찰자의 과학적 etic 접근에 대해(phonetic에서) 특정 문화 내부인의 세계관을 찾는 emic 접근이다(phonemic에서). '意味'는 주로 내부인 입장에서 문화요소들(건축물도 그중 하나)의 서로 위임을 찾을 때 드러난다. Merwyn Garbarino, *Sociocultural Theory in Anthropology* (Holt, Rinehart & Winston, 1977) 82쪽

海南尹씨 종가인 전통 상류주거 녹우당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시기로는 조선시대 유교 바당의 신분제가 어느 정도 남아있고 면담에 의해 전통적 생활의 복원이 가능한 1940년대로 한다.²⁾ 공간과 생활을 복원하기 위하여 문화인류학 배경의 현장 연구 중 당시 거주자와의³⁾ 文化記述學的 면담을 바탕으로 하여⁴⁾ 분석과 해석을 하였다.

연구의 과정은 처음 넓게 시작하여, '거주자가 중요시 여기는 바'를 집중 파악하여 주제를 발견, 좁혀나간다. 과거의 전통 공간을 복원하며, 각 공

2) 전통생활이 살아있는 전통사회의 기준을 6.25 사변 이전 시기로 잡는다. 전통 상류주거의 경제적 바탕이 되는 노비와 소작인들은 1894년 갑오경장시 "노비해방령"을 통해 법률상 불평등 신분제도가 철폐되면서 공식적으로 평등사회가 되었다고 하지만, 또 1945년 8.15 이후 "토지개혁법"으로 영향을 받았으나 실제적으로는 실제적으로 명문 사대부가에서 6.25 사변 전까지 유교에 바탕을 둔 가족체계가 유지되었다. 이광규, 「한국의 가족과 종족」 (민음사, 1990) 19, 164-170쪽 참조.

3) 피면담자 (학술용어로 '제보자': informant)는 당시 녹우당에서 생활에 주 관련이 있는 가족원 4명이다. *윤영표 (중손의 숙부) 1919 녹우당서 태어나 1930까지 거주. 그 후 녹우당에 자주 왕래. 가문역사에 관한 「고산연보-해남윤씨 종가의 뿌리」, 1981, 「녹우당의 가보」, 1988 저술. *윤준식 (중손의 종형): 1927 녹우당서 태어나 1937까지 거주. 현재 녹우당 앞 연동마을에 거주. *윤형식 (중손): 1934년생, 1944까지 녹우당 거주, 1975년부터 다시 녹우당에서 생활하고 있음. *김은수(중부): 1937년생. 1962 결혼직후 녹우당 거주. 시할머니로부터 3년간 중부 수업 받음. 1975부터 중손과 함께 다시 녹우당 거주.

4) James Spradley, *Participant Observation* 이희봉 역, 「참여 관찰방법」 (대한교과서, 1988)

간에서 당시의 가족 구성원들의 일상 및 비밀상 생활의 여러 활동들을 복원한 후 해석을 한다.

1-3 녹우당의 역사

사적 167호 綠雨堂은⁵⁾ 전라남도 해남읍 덕음산 아래 연동마을에 위치하고 있다. 일반에게 고산 윤선도 古家로 알려져있으나, 5백여년전 입학하여 본관을 얻은 어초은 윤희정(漁礁隱 尹孝貞, 1476-1543)⁶⁾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후 5대 윤선도(孤山 尹善道, 1587-1671), 8대 윤두서(恭濟 尹斗緒, 1668- 1715) 등 조선시대 인물들을 배출한 학문적, 경제적 명문가로 알려져 있으며⁷⁾ 현재 19대 손이 살고 있다. 토지와 노비를 경영하여 일대의 대부호가 되었으며, 정치적으로 南人계열의 해남 윤씨는 재야사족으로서 비판적 지식인이었다.



그림 38. 녹우당 입구 전경

1-4 건축적 특성 개괄

호남지역에서 드물게 보는 입자형의 안채와 사랑채로 구성되어있다. 덕음산을 주산으로 자리 잡아 서향 배치가 되었다. 집 뒤에 어초은의 묘소와 사당과 제각(추원당)이 있다. 어초은 사당 옆에 고산 사당이 있고, 담장 안의 집안 사당과 함께 3사당이 모여있다. 텃밭, 마당, 채의 영역을 세분하

는 담장이 발달되어있다. 대문 진입시의 공간 유도 담장, 사랑채의 목조 차양, 정지의 환기구등이 건축적 특성으로 잘 알려져 있다.

녹우당에 대한 선행 연구는, 1969년 김동현의 문화재 관리국 연구를⁸⁾ 시작으로 임영배,⁹⁾ 전봉희¹⁰⁾, 김봉렬¹¹⁾의 연구가 있다. 대체로 공간구성이나 구조적, 의장적 특징들에 대해 비교적 세밀히 조사연구되어 왔으나, 본 연구에서 시도하는 '의미의 해석'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또한 일부 오류를 본 논문에서 수정한다.

2. 공간의 복원과 기존 연구의 수정

2-1 공간복원

녹우당은 15세기 중엽 어초은 이후 여러 차례 공간의 변화가 있었으리라 짐작되나¹²⁾ 최고 오래된 중수 상량문 기록은 19세기 후반이다. 선행연구에서 실측한 배치평면을 참고하고¹³⁾, 본 연구에서 당시 거주자와의 면담을 통해 1940년대로 복원한 배치평면은 다음과 같다.(그림2). 녹우당의 공간구성은 안채, 사랑채, 문간채, 행랑채, 곳간채, 안사당, 고산사당, 어초은사당, 내측간, 외측간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복원한 부분은 뒷마당의 들어가는 담장에 연이어 있었던 곳간채와¹⁴⁾ 안마당의 공로와 부엌방이다. '공로'는 이 집에서 아래가 트인 2층 마루로 된 창고를 일컫는 명칭이다.

안마당의 사랑채와 사이 지금의 화단자리의 공로에(그림3) 대한 면담은 다음과 같다.

8) 김동현, "윤선도 고택의 조사", 『문화재』, 4호, 문화재 관리국, 1969, 53-64

9) 임영배 "고산의 건축 유구", 『고산연구』 1집, 1987

10) 전봉희 "해남 녹우당: 윤선도 고택", 『건축과 환경』, 1995, 3 및 "해남윤씨가 주택경영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6, 3,

11) 김봉렬, "유회에서 실용으로- 부용동 원림과 해남 녹우당" 『이상건축』, 1996.11 및 "시대를 담은 그릇", (월간 이상건축사) 1999

12) 일설에 의하면 孝宗이 스승 고산에게 하사한 집을 수원에 서부터 移建하였다 하나 근거는 없다. 임영배, 250

13) 김동현 1969, 김봉렬 1999 도면을 바탕으로 함.

14) 전봉희 (1995) 앞 글 88쪽에서 임영배의 실측도를 기본으로 한 수정 배치도에서 본 연구에서의 '곳간채 자리'를 '행랑채 자리'라고 잘못 적고있다.

5) 사랑채 현판인 당호 녹우당(綠雨堂)은 집 뒤의 대나무 숲의 잎들이 바람에 부딪히며 나는 소리가 비 쏟아지는 것 같다고 하여 붙은 시적인 이름이다. 식구와의 면담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가 결혼하고 시집 인사 와서 잠을 자는데 밤에 소나기 소린줄 알고 몇 번씩 깨고 했어요. 작은 비소리가 아니라 소나기 쏟아지는 소리가 나더라구요. 안 자본 사람은 잘 모를거예요(머느리 면담)"

6) 강진 지역의 하급 武官직 후손인 윤효정이 文班 士族으로 부상하는 데에 해남 부호 출신 해남 鄭씨 처를 맞이한 것으로 부터이다. 안승준, "16-18세기 해남윤씨 가문의 토지, 노비 소유실태와 경영" (정신문화연구원, 1987) 6-8쪽

7) 윤두서의 외증손자인 다산 정약용(1762-1836)도 집안에 포함된다.

“이층으로 된 공로였어. 1층 밑에는 절구, 전라도 말로 도구통이 있었고, 비 안 맞고 떡메로 떡치게 되어 있었제. 일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작업을 많이 했어. 그리고 2층에는 사다리 놓고 올라갔는디, 석유통이나 남포, 밖에서 쓰는 비 같은 허드렛 물건 올려놓는 물치장이었제. 전체 높이가 열자에서 열두자 정도 됐지. 1층은 사람이 서서 작업했고 2층 올라가서는 구부정하게 사용했어.

이 공로가 가려서 사랑채가 안보였제. 지금 화단으로 꾸민 것은 지금의 종손이 그렇게 했지. 얼마 안되었어. 아버지[윤영표]께서 지으셨어. 옛날부터 내려온 게 아니라. 갑갑해서 근래 2-30년전쯤 헐었어.”(중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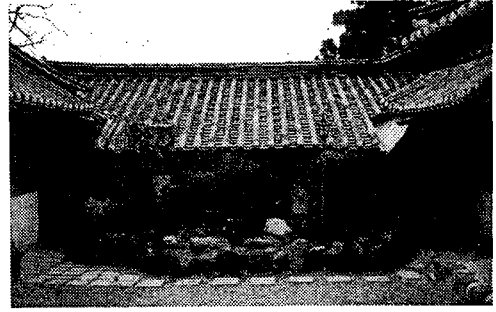


그림 3. 안마당 공로자리 (현재 화단이나, 과거 사랑채 안채 분리하는 역할 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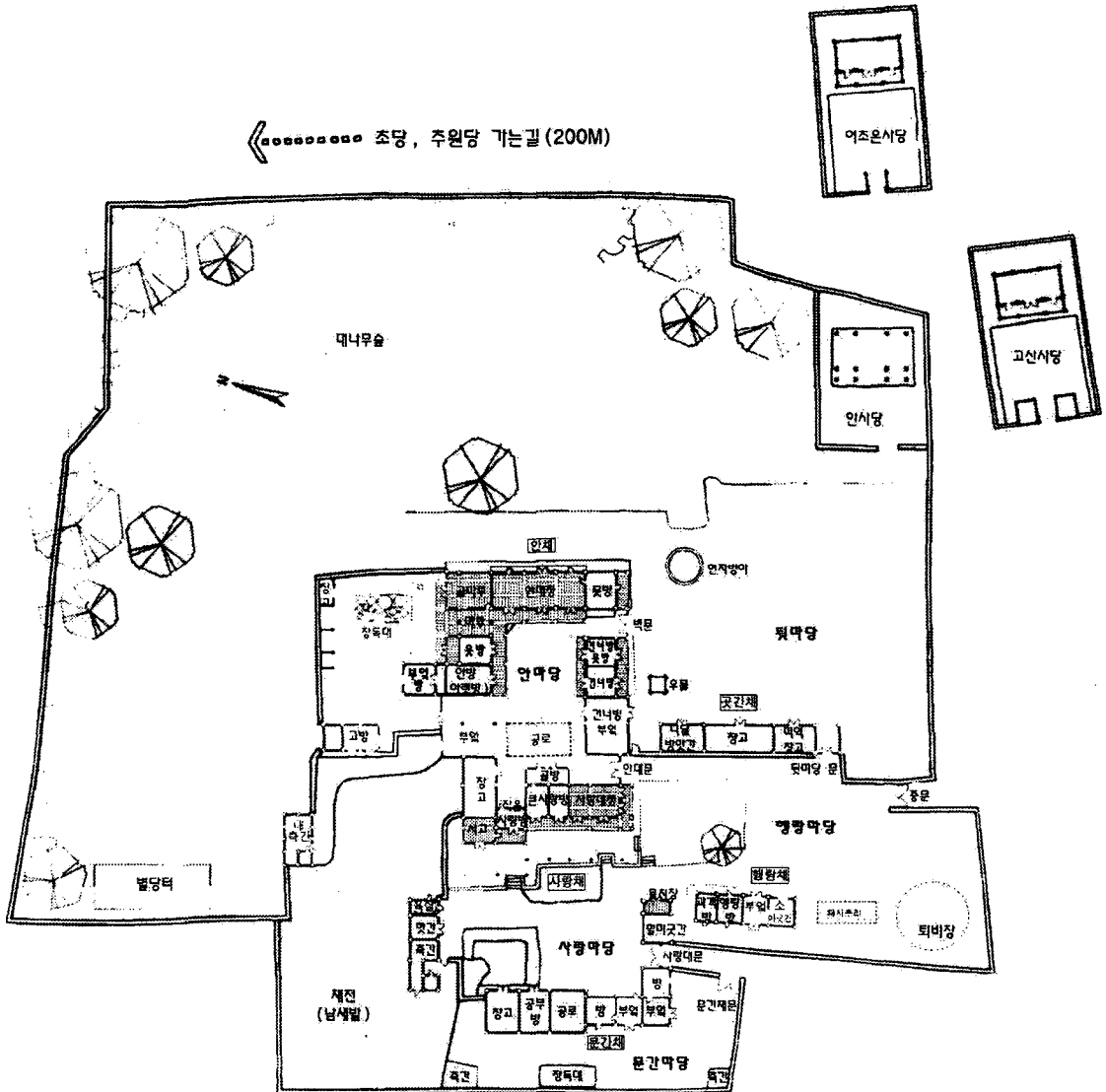


그림 2. 1940년대 복원 배치평면도

뒷마당문으로 뒷마당에 들어가면 초가로 된 공간채가 행랑마당과 평행하게, 그리고 안채 건너방 부엌에 연이어 있었다. 디딜방아간, 헛간, 미역창고로 되어있었다. 미역창고에 대한 면담은 다음과 같다.

“진도에 가면 맹골도가 있는데, 우리집 소유로 되어 있었지. 어초은때부터. 거기서 미역, 상어 말린 것, 밀 같은 것을 열 너댓 사람이 배로 싣고 삼산 어선포, 지금 해장으로 와서 지게로 일렬로 지고와서 일일이 검수하고 미역창고에 넣어두었어”

공간채는 사라호 태풍때 사라졌다.(1959) 담장안 북쪽 영역의 별당자리는 면담에 의하면 ‘빈집터’라 부르며 이미 백여년전에 없어졌으므로 도면 복원하지 않았다.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부분으로 녹우당에서 200m정도 떨어진 1938년 사진에 나타나는 초당15)과 현존 추원당이 있다.

현 안채 건너방에 연이은 큰 창고는 당시 건너방 부엌이었다.

정확한 위치는 불확실하지만 부엌 옆에 달아서 부엌방이 있었다.

“지금은 없어졌는데 부엌방이 꽤 크게 있었제. 부엌방에는 살판이 있었고, 벽장문이 있어서 거기다 그릇을 넣어 보관했제. 국민학교 다닐 때 거기서 밥도 먹고 했지”(종형)

“마루로 된 부엌방인데, 밥을 짓는다 해서 밥침방이라 했제. 식모가 거쳐했고. 부엌마루라 해서 실제 상놓고 밥만 차리는 장소였제.(종부)

2-2 명칭 수정

사물에 대한 이름은 실체가 아니고 기호일 뿐이다. 이름 붙임을 통하여 그 사람들의 세계관을 알 수 있다.¹⁶⁾ 외부인인 건축연구자들이 학문적 선입관에 의해 통용하는 이름에 반하여, 이 연구에서는 거주자 스스로가 부르는 이름을 찾아내어 그 의미를 찾아나간다.

1) 대문에 대하여

15) 1980년에 없어짐. 자손들의 공부장소로 다산 정약용이 공부했다 하여 다산초당이라고도 불림.

16) 사물의 이름 연구는 집단의 문화연구의 기초가 되며 이를 분류학(taxonomy)이라 하여 인지인류학(cognitive anthropology)의 중요 방법이 된다. Stephen Tyler, *Cognitive Anthropology*. 1969

김동현 도면에서 마을에서 들어가는 문을 ‘대문’, 사랑채-안채의 문을 ‘중문’, 외부에서 행랑마당으로 들어가는 문을 ‘협문’으로 표기한다. 그후 연구자들은 아무 의심없이 따르며, 임영배는 그 이름으로 각 문에 대한 마당의 진입을 설명한다.¹⁷⁾ 본 논문에서 거주자 면담을 통하여 대문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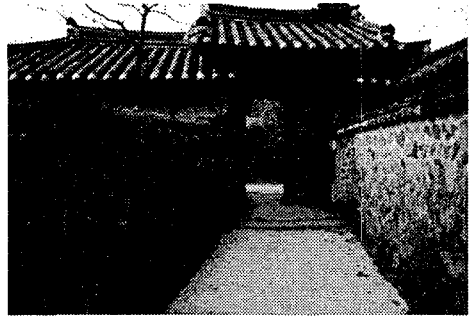


그림 4. '사랑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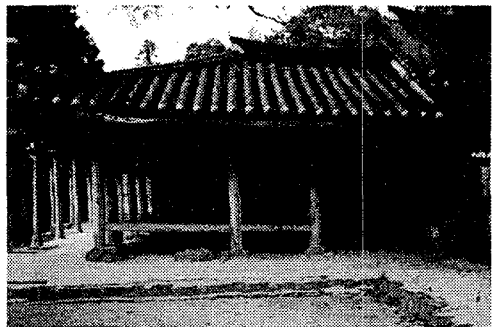


그림 5. 행랑마당에서 본 사랑채 옆 '안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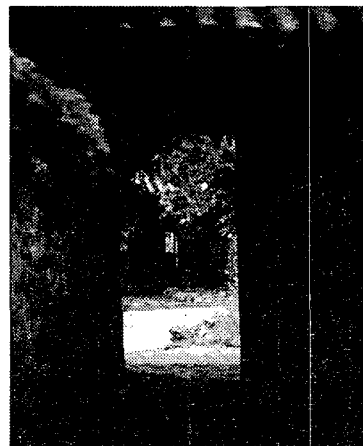


그림 6. '중문'에서 본 '안대문'

17) 임영배(1987) 253 배치도, 254 본문. 전봉희(1995) 88, 배치도.

‘사랑대문’(그림4), 중문을 ‘안대문’(그림5), 협문을 ‘중문’(그림6)으로 정정한다. ‘대문-중문’의 선행연구 체계에서는 마을에서 대문을 들어와 중문의 안채로 진입한다는 전제가 되어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밖에서 사랑과 안채로 각각 진입한다는 뜻이 들어있다. 또 단순히 좁다는 ‘협문’을 ‘중문’으로 정정함으로써 안사람들이 주로 사용하거나 농사일을 하는 뒷마당으로 들어가는 실용문의 역할을 갖는다. 안대문의 밖은 행랑마당으로서 한 데, 즉 바깥이라는 영역이 분명해진다.

안대문은 평소 안사람들이 드나든 것이 아니라 사랑채에서 통하던 상징적 문이었다. (유사시 추수작업 때 안채 곳간으로 쌀가마니를 나르던 기능은 있었다.) 여성인 안사람들은 마을에서 대문 (수정 ‘사랑대문’)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중문-뒷마당문을 통해서 뒷마당 쪽으로 난, 안채 못방 옆의 부엌 ‘벽문’으로 드나들었다.

그 외 대문으로서 사랑대문 앞의 담장에 문간채로 따로 들어가는 별도 ‘문간채 문’이 있었으나 지금은 용도가 없어져 담장으로 막았고 퇴비장 옆 작업문이 (외부에서 입구 모서리) 70년대에 철문으로 있었으나 지금은 없었고 지금 있는 안사당 옆의 문은 예전에는 없었다.

2) 행랑채, 행랑마당에 대하여

기존 연구에서 가장 잘못된 부분은 행랑채와 행랑마당이다. 기존 연구에서의 안채-사랑채-행랑채 축상의 제일 바깥 채는 이 집에서 ‘행랑채’가 아니라 ‘문간채’라고 불렀다.¹⁸⁾(그림2 참조) 진짜 ‘행랑채’는 사랑채 남쪽, 사랑대문 입구 진입 담에 평행으로 배열된 건물이고, 이후 본 논문에서 행랑채는 이 건물을 지칭하니 주의를 요한다.(그림7)

실제 행랑채의 부엌 옆방에 녹우당에 속한 머슴들이 거주하였었다. 행랑채의 사랑채쪽 끝 방은 서당방 또는 과객방으로 불렸었고, “훈장이 와서 자제들 가르치고 하던 방”이었고 “일반 과객들이 오면 자던 방” (귀한 손님은 사랑방에서 자고)이었다.

기존 연구에서 행랑채로 잘못 알려진 ‘문간채’는 ㄴ자형으로서, 한 날개는 대문과 마굿간과 물치장

이 있었다. 또 다른 날개의 반은 사랑마당으로 열린 차남의 공부방과 공로로 쓰였고, 나머지 반은 두 집 살림의 방과 부엌과 축간이 별도로 있는 가구가 형성되어 있었다. 별도의 담장으로 둘러싸인 문간채마당을 갖고, 독립된 외부 대문을 갖는, 말하자면 호집 성격의, 녹우당과는 반쯤 독립된 살림집이었다. 따라서 ‘행랑마당’으로 표기된 기존 도면과 설명도 ‘문간채마당’으로 정정되어야 하



그림 7. 사랑채에서 본 ‘행랑채’ (수정표기)

며¹⁹⁾ ‘행랑마당’은 수정된 행랑채 앞, 즉 사랑채의 남쪽으로 이동 표기되어야 한다.

행랑채의 남쪽 끝, 부엌 옆 칸에는 소외양간이 있었고 그 옆에 돼지우리가 있었고, 마당 모서리에는 똥과 짚을 섞어 쌓아둔 커다란 퇴비장이 있었다.

행랑마당을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 이 집의 공간 이용의 설명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행랑마당이라 잘못 알려진 곳은 개인 주거의 마당인 ‘문간채마당’이 되고 이름 없는 사랑채 남쪽 마당이 농사 작업상 중요한 ‘행랑마당’이 된다.

2-3 집과 마을

연동마을은 입구부터 대부분 중가 소유의 남송들과 연동들이 넓게 펼쳐져 있고 그 뒤로 마을이 있다. 지금 녹우당에 가면 80년대까지도 있던 주

19) 김동현은 문간채와 행랑채를 합하여 행랑채라 본다.(53.57쪽). 김봉렬(96)은 ‘문간채’를 같은 글에서 어떤 때는 ‘객사랑채’(횡단면도 108쪽) 또 어떤 때는 ‘객행랑채’(평면도 105쪽)로 혼동 사용하나, 본 논문에서의 ‘행랑마당’은 행랑마당이라 제대로 표기하고 있다. 임영배는 본 논문에서의 ‘문간채마당’을 ‘행랑마당’으로 잘못 표기하고 있다 (공간이용분석도 256쪽). 전봉희 배치평면도에는 행랑채가 다른 장소에 3개씩이나 나온다. 즉, 행랑채자리 (본 논문 ‘곳간채 자리’), 행랑채, 바깥행랑 (본 논문 ‘문간채’) (88쪽).

18) 임영배는 도면과 글에서 본 논문에서의 문간채를 전부 행랑채로 표기하고 있다. 255, 256, 259쪽. 전봉희는 ‘바깥행랑’으로 표기한다. 8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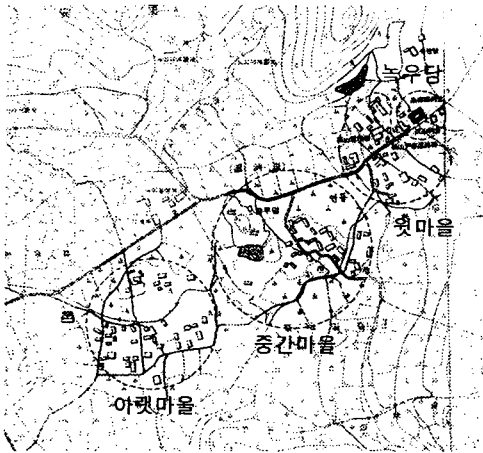


그림 8. 마을 내부인의 관점에서 작성한 연동마을의 범위와 분류지도

변 초가집들이 전부 없어지고 기념박물관만 있다. 그러나, 연동마을은 녹우당 종가집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서로 분리하여 존립할 수 없었음을 다음의 면담에서 알 수 있다.

“이곳 연동마을은 자가일촌이라 타성반이가 거의 없어. . . 마을사람들의 생활기반이 모두 종가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거의 종가의 소작을 했으니까. 그렇게 농사일 있을 때는 온 마을이 총동원이 되어서 허고 했제. 호집 갖고는 어렵 없었으께. 그들도 큰집, 큰댁이라고 불렀는디 큰집일 있을때는 다와서 일할줄 알고 도왔제. 호집이라고 해도 다 한식구 같이 지냈고 상하 구별없이 잘 해줄려고 노력했제.” (중형)

연동마을은 토지를 매개로 녹우당 主家를 중심으로 여남은 채의 호집과, 小作人家가 동심원형으로 배열되어 있었다. 주민들은 웃마을, 중간마을, 아랫마을로 구분하여 부르고 있었다.(그림8). 녹우당이 있는 웃마을은 호집 사람들과 가까운 친척이 살았다. 중간마을, 아랫마을은 종가에 생활기반을 두고 소작하던 윤씨 일가들이 20여 세대씩 모여서 살고 있었다. 동심원은 반드시 신분 혹은 경제계급적 관계만이 아니라 동족부락의 인척관계와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이와 관련한 면담과 마을내부인의 관점에서 본 연동마을의 범위와 분류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마을을 부를 때 웃마을, 중간마을, 아랫마을로 부르제. 웃마을은 종가의 근친들인 대소가와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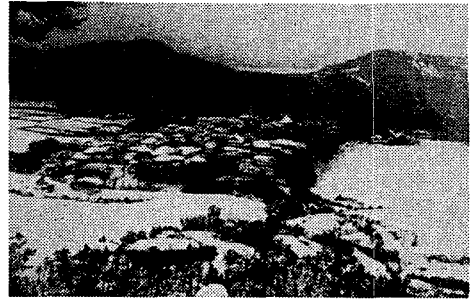


그림 9. 과거 연동마을 전경 (1938년. 위오른쪽 소나무 옆이 녹우당과 사당임. 윤영표 제공)

집들이 있고, 중간마을은 서당계 설이라고 그전에 서당이 있던 자리라고 해서 그러고, 아랫마을은 역마을이라고 그전에는 암행어사가 올 때 암행어사 말이 있던 자리라고 해서 그렇게 부르제. 그전에는 마을 전체가 83가구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50여가구 정도로 작아졌제.”(중형)

경제사학에서 집을 독립된 개체로서가 아니라 양반 지주층의 농장 구조속에서 主家와 奴家와 田畷의 복합체로 보고 직영과 竝作의 복잡한 농업경영적 관계로 보는 것과 일치한다.²⁰⁾ 지금은 거의 없어진 웃마을이 1930년대 사진에서 잘 보인다.(그림9)

따라서 녹우당 집은 단일 본가만이 아니라 본가-마을, 본가-토지 속에서 의미가 있었으므로 범위를 확장하여야만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 공간과 거주자의 일상 삶

3-1 남자들의 일상 삶과 공간

녹우당의 대표권은 가장인 당주에게 있었다. 당주가 생활하던 공간은 집의 중심에 있는 사랑채의 큰사랑방과 사랑대청이었다. 안으로 여자 공간인 안채와, 밖으로 호집 성격의 문간채와 머슴들의 행랑채의 중심 위치로서 집안전체의 가사를 관리 통솔하는 데 적합하다. 사랑대청에서 중문, 사랑대문, 안대문이 다 보임으로, 당주가 사람들의 출입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큰사랑방은 웃방, 아랫방, 골방으로 되어 있다. 평상시는 당주의 일상적

20) 김건태, “16-18세기 양반지주층의 농업경영과 농민층의 동향” 성균관대 박사, 1996. 3쪽

인 생활공간이지만 중요 손님이 오면 접대하는 공간이었다.(그림10) 이와 관련한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큰 사랑방에서 할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백부님이 사셨제 낮에는 양쪽을 다 열어놓고 생활하셨제. 밤에 주무실 때는 옷방에서 주인 어른이 주무시고 아랫방은 인척들이나 중요한 손님들이 오셔서 주무셨지. 골방은 안채로 통하는 문이 있어 갖고 은밀히 통하는 장소였제”(중형)

“손님들이 많이 오면 대청에서 만나기도 허시고. 대청마루 문을 열어놓으른 사람들이 오가는 것이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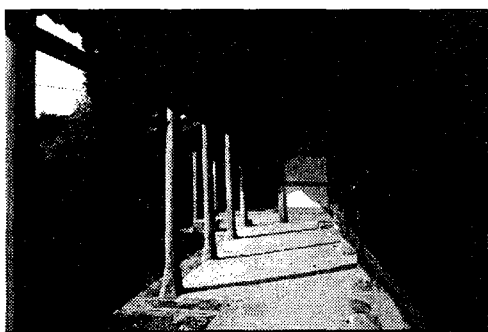


그림 10. 사랑채 차양과 뒷마루

다 보였제. 당주가 식구들 출입하는 것은 알아야 허셨것제”(중손)

장남은 큰사랑방 옆의 한 칸의 작은사랑방, 차남들은 문간채에 있는 공부방을 사용하였다. 아들들은 당주의 거처 가까이서 생활하며 책을 보거나, 지시하는 가사를 도왔다. 또 매일 문안인사와 함께 이부자리를 봐주는 일을 하면서 효를 실천하였다. 이와 관련한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작은사랑방-“결혼하지 않은 큰아드님이 사셨지. 방이 조그만해. 책도 보고 아버지께서 지시허는것도 허고 그랬제. 아버지 이부자리도 항상 봐드리고.”(중형)

-문간채 공부방-“나 어렸을 때도 거기서 공부했어. 형들도 같이 지낼 때도 있었는데 조금 크면 타지로 외국으로 공부하러 가고 그랬제.”(숙부)

그 외 사랑채에는 서고와 약포와 골방에 약장이 있었다.

3-2. 여자들의 일상 삶과 공간

안살림권을 가진 안주인은 안채의 중심인 안방

에서 생활하였다. 녹우당에서 당주는 고령이 되어 대외 활동이 어려울 때까지 대표권을 유지하고 있었던 반면, 안주인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약60세) 며느리에게 안방과 살림권을 넘겨주고 건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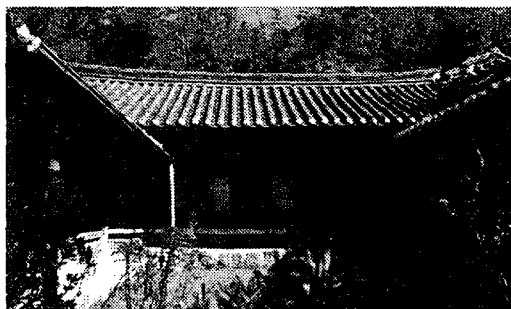


그림 11. 안마당- 대청

으로 가서 생활했다. (그림11,12)

안방은 아랫방, 옷방, 골방으로 되어 있는데 사방으로 문이 나 있어서 안주인이 안살림을 관리하기 편하게 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한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방은 역대 안주인들이 거처허던 곳이었제. 아랫방에서 주로 생활 하셨는디 부엌으로 난 문이 있었어. 그때는 호집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할머니가 방에 앉으셔셔도 관리를 허셨어. 옷방은 여자 아랫것들이 자면서 방청소나 물심부름 같은 것을 했제. 또 옷방에서 제찬 준비도 했는데 문을 열면 마루하고 통하도록 되 있었어. 골방에도 문이 있어서 없어진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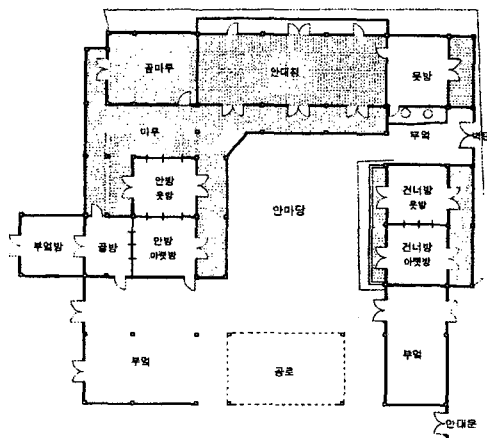


그림 12. 안채 평면도

엿방과 통하고 또 마루로 내다보는 문도 있었제.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있었고”(중손)

건너방은 안살림권을 넘겨준 시어머니가 거주하지만, 분가해 살면서 찾아오는 자손들이나 여자친척들을 맞이하는 곳이기도 하였다.

“할머니가 한 60세정도 나이가 드시른 옮겨가 사셨제. 주로 아랫방에서 거처하시고 자고 갈 손님이 오거나 객지에서 며느리들이 오른 옷방에서 머물기도 하는 용도였제.(건너방)” (중형)

새로 시집은 며느리는 모서리에 위치한 ‘못방’에서 (옷방으로 잘못 표기-김동현, 임영배) 거처하였다. 한 칸으로 된 아주 작은 공간이다. 이와 관련한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가 시집와서 한 일년을 살았는디 사람이 누우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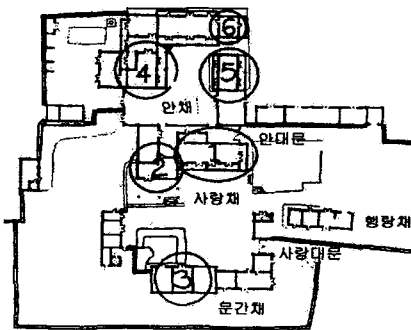


그림 13. 가족구성원의 사용공간

- ①큰사랑방-당주 ②작은사랑방-장남③문간채공무방-차남 ④안방-안주인⑤건너방-시어머니 ⑥못방-며느리

꼭 맞아. 처음 거기서 사는디 진짜 답답하고 사람이 살기에 너무 적었제. 낮에는 하루 종일 집안 일하고 밤에 잠만 자는 곳이였제.”(중부)

“여자들은 못방-안방-건너방의 세코스로 이루어졌제” (중형)

1940년대에 녹우당에서 가족구성원이 사용했던 공간은 그림 13과 같다.

4. 봉제사 공간

유교 바탕의 조선시대 다른 상류주거와 마찬가지로 가문의 영속성을 추구하는 제사²¹⁾공간과 활

동을 본다.

“제사를 자주 지내는 정도가 아니라 표가 다 여기 있어요. 호 및 조상 시일을 다 적어놨어요. [탁자 위에 제사 종별 날자를 표로 일목요연하게 붙여놓음] 1994년 현재입니다. 이 어른들 전부가 여기서 거처하셨어요. 전부해서 말입니다 4대봉사니까 우리 백부를 중심으로 해서 열네분 제사를 갖다드시고, 5대조 위로는 열네분인데 이고 시제사로 묘전제로 하지.”(중형)

녹우당 생활 공간인 연동마을 위쪽에 어초은의 묘와 사당이 있다. 마을의 배치에서 제사권을 가진 중손이 사는 종가가 제일 위쪽에 있고, 다른 일가친척집들이 그 아래에 있다. 연동마을 전체 배치는 조상과 자손들간의 위계에 의해서, 덕음산 아래로 묘-사당-종가-일가친척집 및 호집 순으로 되어 있다.

녹우당이 종가로서의 막강한 경제적 세력이 몇 백년씩 유지되고 있는 배경에는 봉제사용 대규모의 位土畝의 관리권이 있다. 이것은 지금도 불문불로 남아서 종가와 일가들이 함께 사는 근거가 유지되고 있다.²²⁾

녹우당은 제사권을 가진 종가로서, 사당과 제각을 정비하는 일과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은 특히 중요한 생활의 일부였다. 제사는 간소화는 되었지만 일 년에 약 20여 차례를 지내고 자손들이 모이는 계기가 된다.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생활이 종교가 바탕이 되어서 이루어 졌다고 보제. 가족들의 생활이 종교적인 토대 위에 달라졌을께. 말하자른 대가집 예법이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제. 4대봉사니 시제사니 7첩반상이니 하는 모든 것이 전통유교에서 유래 되었제. 우리집은 시제사나 기제

21) 최봉영, “한국인의 가의 실현에 관한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논문, 1991, pp.31-39

22) 1760년 낙서 윤덕희(駱西 尹德熙, 1685-1766)가 작성한 同生和會文記 중 “1.제사를 위해 재산의 1/5을 따로 떼어두고 자손들에게 분재하지 않는다. 2. 백연동, 백지형 두 마을의 산과 집터 그리고 마을은 자손에게 나눠주지 못하며 여기에 있는 자손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 그 집과 터는 종가에 귀속한다. . . 14. 각처에 산재하여 있는 종가소유의 田畝와 家堡를 종손이 팔려고 하면 이를 말리고 만일 이를 어기면 관에 고발하여 팔지 못하게 한다.” 는 내용. (윤영표, 「녹우당의 가보」, 140쪽). 이 당시 위토담의 규모는 총 283.45斗落 (1斗落은 약 200-300평), 田 107.5斗落, 노비 119口였다. (안승준, “16-18세기 해남윤씨가의 토지·노비 소유실태와 경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논문, 1987 참조)

사가 일년에 20여 차례가 되고 제사상도 고산 할아버지가 창안한 진설법을 따라서 하고 있제. 우리집 제삿날이 온 동네 잔칫날이제. 그리고 지금은 안그러지만 그전에는 못 살때라 모두들 음식 나눠 먹으려고 2-3일 전부터 준비를 많이하고 그랬제”(종형)

조상을 봉양하는 사당은 어초은 사당, 고산사당, 안사당 세 곳이 마련되어 있고, 어초은 사당에 딸리는 제각인 추원당이 종가에서 약 200m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다. 각 사당들은 죽은 조상의 위계에 따라 위치가 정해져 있었고, 제사 지내는 종류와 장소, 참여인원 등이 다름으로 제사진행에 사용된 공간에도 차이가 있었다. 이를 각 사당별로 살펴본다.

어초은 사당은 시조 사당임으로 가장 위쪽에 있다. 제사는 일년에 두 번 기제사와 시제사를 지낸다. 기제사는 가족들과 동네일가들이 30-40명 정도 참석한다. 시제사 때는 타처에 사는 일가들까지 150-200명 정도 참석하도록 사당 앞이 넓다. 제찬준비는 종가에서 한다. 마을 일가친척들과 호 집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안주인이 직접한다. 제사를 지낸 후 음복장소인 추원당으로 음식을 옮긴다. 이와 관련한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초은 할아버지는 일 년에 두 번, 돌아가신 날하고 시제사때 지내제. 시제사는 음력 11월 15일 동짓달에 지낸다 일부러 다른 시젯날 하고 똑 띄워서 여러분들이 오시기 위해서 날을 잡아서 지내. 한 150-200명 정도 오시제. 제사준비는 종가에서 하는데 호집이나 일가친척들이 다 도와서 허제. 사당에서 제사 지내고 추원당으로 음식 옮겨서 음복 하고 그러제. 일가분들이 오면 거기서 자고 가고 그러시지.” (종손)

영조 3년(1727) 불천지위(不遷之位)로 지정된 고산 사당에서는 기제사만 지낸다. 시제사는 묘가 있는 금쇄동 고산제각에서 지낸다. 시제사는 각처에서 150-2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참석하여 지낸다. 이와 관련한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산사당은 불천지위라 해서 일년에 두 번 제사 잡수시는데, 돌아가신 날하고 시제사때 묘전제사라 해서 모시제. 돌아가신 날은 근친들하고 동네분들이 와서 지낸다 집에서 정성껏 장만해서 음식을 옮겨서 지내고 음복도 하고 그러제. 금쇄동에서 지내는 시제는 사람들이 150- 200명까지 각처에서 오셔. 거기서 음복도 하고 일가들이 자고 가고 그래. 아침 10시경에

시작해서 점심 먹고 끝내제.” (종손)

안사당은 4대 봉사를 위한 곳으로 기일날 제사를 지낸다. 사당에서 위패를 모셔다가 대청에서 지낸다. 대청 안이나 마당에서 음복하고 마친다.

“제례는 안대청에서 지냈는데 고조부까지 4대봉사를 하제. 가묘로 봉안해 놓구서. 제례순서는 가묘를 사당으로 가지고 가서 사당안에서 제주가 축문을 읽고 가져오제. 갈때에 향과 향로를 가져가서 향을 피우고 그러제. 제관들과 함께.”

그리고 5대조 위로는 각처의 묘에 딸리는 산과 제각을 두고 있으며 날을 정해서 시제사를 지낸다. 위에서 각 사당별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1)

사당 제사	고산사당		어초은사당	
	기제사	시제사	기제사	시제사
장소	안대청	고산제각 (금쇄동)	안대청	어초은 사당
음복	안대청 안마당	고산제각 (금쇄동)	안대청 안마당	추원당
참여 인원	30-40명	150-200	30-40	150-200
준비	안채의 부엌, 안마당		안채의 부엌, 안마당	
기타	5대조이상은 묘가 있는 제각에서 한 번에 시제사로 지낸다.			

표 1. 각 사당별 제사 관련 공간

종가집 생활은 제사로 시작해 제사로 끝난다고 해도 그리 틀린 말이 아니다. 제사 음식준비에 2-3일 걸린다면 평시에도 늘 몇 일 걸려서씩 제사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부엌의 용도는 평시보다 큰일치르기에 대비한 공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제사 준비에 호집과 마을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제사는 마을 공동 행사이고 동시에 마을 잔칫날이 될 정도로, 주가와 마을은 제사를 통해 뗄 수 없는 하나의 연결체가 된다.

5. 농업경영과 공간

녹우당의 생활은 조선시대 여느 반가와 마찬가지로 유교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있지만, 연구가 점

차 진행되면서 면담에서 농사일과 그에 관한 공간이 자주 등장하게 되었다. 농업경영이 실질적 생활기반이었고, 가족이 거쳐하던 방과 제사 사당을 제외한²³⁾ 공간 대부분이 그에 사용됨을 알았다. 직접 농사를 지었던 종손과의 면담을 통해 농업활동 종류와 공간을 분류해 나간다.

생산준비공간, 작업공간, 보관공간, 식사준비, 제공공간, 노동인 거주공간으로 분류하였다.

5-1. 생산준비공간

한해 농사를 시작해 수확을 얻기 전까지 과정에 필요한 공간이다. 거름주기-종인파종-이종(모심기)-가식(보충작업)-제초(풀뽑기)의 활동이 일어나고, 농기구 보관공간, 거름생산 공간, 씨종자보관공간이 필요하다. 면담은 다음과 같다.

- 거름주기- “봄되기 전 설쇠고 일꾼들이 퇴비장에 쌓아둔 거름을 지게로 저서 논으로 밭으로 내다 뿌렸제. 일년 농사가 잘 될러는 당연히 땅에 거름을 해줘야 현제.”
- 종인파종- “별씨는 농사짓고 종자 좋은 것을 골라서 가마니에 보관해 두었다가 썼제잉. 별씨는 봄에 4일정도 물에 담과 두면 촉이 트제. 한 2mm정도 촉이 트른 모판에다가 뿌린다 모판은 논에다 미리 쟁기질, 씨래질을 해서 만들어 놓제.”
- 이종(모심기)- “모판에서 모를 키워갖고 모가 한 15cm정도로 크른 이종을 허제. 모심은 때는 하지를 중심으로 전3일 후3일이라고 했은께. 그리고 한달전에 파종허고.”
- 가식(보충작업)- “파종한 다음 가식을 헐디 가식은 보충한다고 생각하른 돼. 심다가 빠진 부분이나 모가 죽은 것을 다시 심었는디 이것도 한 15일 걸려서 사람이 일일이 해줬제.”
- 제초(풀뽑기)- “가식허고 난 다음은 풀을 뽑아주는 제초 작업을 했제. 풀뽑는 작업은 한모, 두모, 세모라 해서 벼가 어느 정도 크기까지 3번을 해줬어.”

생산준비에 사용된 공간들은 그림 14와 같다.

생산준비 공간은 직교된 사랑마당과 행랑마당에 연속되어 분포하여 있고 중심점에 사랑방이 있어서 관리감독이 용이하게 되어있다. 거름생산공간은 사랑측간, 소마굿간, 돼지우리, 퇴비장이었다. 측간은 일반적으로 생리적 행위 해결 공간으로 알

고있지만, 농사에서 지력을 높여주는 거름을 생산하는 중요 공간이었다. 소마굿간과 돼지우리도 분비물을 짚과 섞어 거름을 만드는 곳이었다. 퇴비장은 일년내내 거름을 산더미로 쌓아두어야 하므로 행랑마당 담장이 밖으로 불쑥 튀어나와 확대되어 있다. 이 담장을 기존 건축학 연구에서 대문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시각적 처리 담장으로 해석함은 ‘외부인 중심, 형태중심’의 대표적인 오류이다.

- 측간- “찻간은 어른들하고 아랫것들이 사용하는 것이 달랐제. 어른들이 일을 보면 아랫것들이 재로 덮어서 치웠제. 그리고 그때는 화장지 대신 짚을 썼제. 그것이 또 거름이 돼서 사용되고 말하자른 자급자족이었제.” (중형)
- 소마굿간, 돼지우리- “소마굿간에는 짚을 깔아 놓은 배설물허고 섞어서 퇴비가 되었제. 퇴비장 옆에 돼지우리도 그러고” (중형)
- 퇴비장- “소마굿간이나 찻간에서 만든 재를 1년동안 썩게 놔두면 거름이 높게 가득 쌓였을께. 이른 봄에 일꾼들이 논밭에다 거름을 저서 날렸제.” (중형)

농기구보관공간은 측간헛간, 마굿간 물치장과 공로, 행랑채 헛간이었다. 농기구 종류에 따라서 보관장소가 다음 면담과 같이 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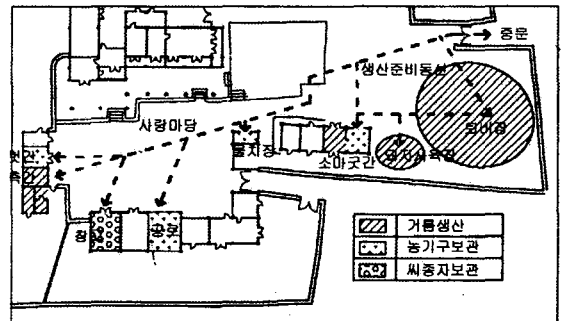


그림 14. 생산준비공간

- 측간 헛간- “농경작업에 쓰는 연장들 놓고 쓰고 했제. 거름같은 것 저나르고 그럴러는 지게 같은 것이 필요했을께.”(중형)
- 마굿간 물치장, 공로- “호미, 낫 같은 농기구들을 보관해 뒀제.” (중손)
- 행랑채 헛간- “소에 딸리는 도구들이 있었어. 쟁기나 보삽 같은” (중형)

씨종자 보관공간은 문간채 창고였다. 추수 때 많은 수확을 하기 위해 소중하게 취급되었다.

23) 이 공간들도 농업경영을 이끄는 사람들의 공간으로 농업경영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4) 정인국, 『한국건축양식론』, 1982. 김기주, “조선시대 중기 이후 반가의 공간사용과 평면형식에 미친 가례의 영향” 연세대

- 문간채 창고- “법씨는 농사지은 것중 종자 좋은 것을 골라서 가마니에 보관해 두었다가 썼제잉. 귀같은 것도 있고 그렇게 소중하게 관리를 잘했제.” (종형)

5-2. 추수작업공간

농사작업은 집안에서와 논밭에서 행해지는데, 집안에서의 가장 큰 작업인 추수 관련 작업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논에서 거둔 벼를 중문을 통해 일단 뒷마당으로 옮겨서 마당 팍차게 여러 더미(노적벼늘, 또는 나락벼늘) 쌓아놓고 여러날 걸쳐 탈곡을 하였다. 초기에는 빗갈이 생긴 홀태에 훑어서 했고 후에는 회전식 탈곡기가 나왔다. 탈곡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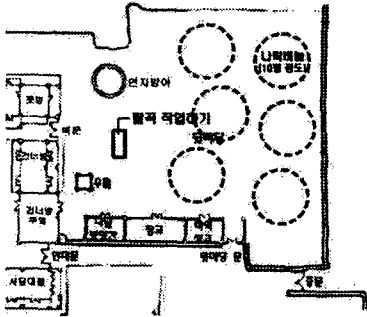


그림 15. 벼 추수후 뒷마당 노적벼늘 (앞부터 탈곡후 그 자리에 두대통 설치)

나락을 마당에 덩석을 깔고 말린 후 창고 대응의, 짚을 엮어 만든 두대통을 여러 개 만들어 보관하였다. 이와 관련한 면담내용은 다음과 같다.(그림 15)

“추수해서 일일이 사람이 논에서 나락을 베갓고 등짐으로 메고 왔제. 일꾼들이 일렬로 죽 메고 중문으로 해서 뒷마당에다가 쟁였는디 그것을 노적벼늘이라고 허제. 노적벼늘을 쌓아뒀다가 탈곡을 헌디, 지금은 기계로 허지만 그때는 일일이 사람이 홀태로 했제. (종형)

나락은 뒷마당의 소가 끄는 또한 연자방아로 정미작업까지 하였다. 뒷마당은 추수, 탈곡, 보관, 정미의 공간이었다. 추수후 겨울 내내 논농사 추수관련 작업이 행해지고, 그후에는 보리나 콩 등의 발작물 작업이 행해졌다. 이와 관련한 면담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사가 많으께로 여러날을 했는디 탈곡한 날로만

한 한달 이상을 걸려서 했제. 한 10여명이 날 봐서 좋은 날 허고 허다보면 겨울 내내 했으께. 뒷마당이 일종의 건조장 역할도 했제. 덩석 깔고 말리는. 그리고 겨울 지나른 보리나 콩 같은 것 작업허고 항상 뒷마당은 일꾼들이 바빻제. 뒷마당에 연자방아가 있어서 소로 나락 짚고 또 디딜방앗간에서 정미허고 그랬제. 한꺼번에 많이 안허고 먹을 만큼씩 자주 짚었제.” (종형)

5-3 곡식 보관공간

벼는 먹을 만큼 보관하여 알곡으로 정미하고 그 외 대부분은 보관하였다가 판매하였다. 보관공간은 작업공간과 가까운 안채와 뒷마당이였다. 보관이 행해진 공간은 다음 그림과 같다.(그림 16, 18)

논농사 수확물의 주 보관 건물은 지금은 없어진 곳간채 창고로서 농사규모에 비하여 아주 작았다. 그러나 두대통을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가능하였다. 두대통은 본가에서 직접 직영한 나락을 보관하기 위해 해마다 짚을 엮어 만들어 사용했던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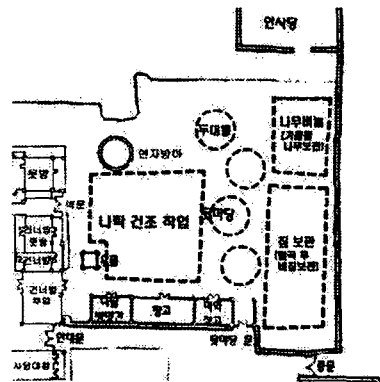


그림 16. 탈곡후 뒷마당 곡식 보관 공간 (두대통, 짚벼늘, 건조공간 및 나무벼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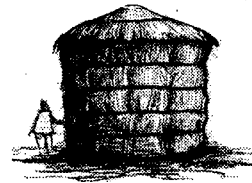


그림 17. 두대통 모습

으로 창고에 가마니로 보관하는 것보다 많은 양을 보관할 수 있었고 처분하는데에 용이하였다.(그림

16, 17) 두대통의 크기는 추수한 곡식의 양에 따라 조금씩 달랐으나 보통 하나에 200-300가마니의 분량이 들어가는 큰 규모였다. 이와 관련한 면담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어렸을 때도 그랬고 나만해도 추수 후에는 뒷마당에다 두대통을 맹글어 갖고 나락을 보관했제. 이것은 마람을 엮으면서 나락을 부어 올리는 것인데 밑에 습기가 안들어 가도록 벼짚을 엮어서 튼튼하게 깔고 보관했제. 옛날에 대농가집은 두대통으로 재력을 평가했어. 만드는 것은 일꾼들이 농사작황을 보고 짐작으로 만들었제. 이렇게 해 년마다 새로 보관 하는것인디 가마니에 하는 것보다 훨씬 보관이 용이했제. 가마니에 담아서 창고에 보관할라든 엄청난 창고가 많이 있어야 했것제. 보통 200두락(약4-6만평)정도 직영 했는디 1200가마니정도 된다고 보제. 두대통 크기는 가마니로 200-300가마니 정도 들어가. 대략 높이가 두사람 키정도 되었고, 길이가 한 3m정도 됐제. 창고에는 가마니로 들어온 곡수에 한해서 보관하고.”(중손)

안채는 발농사 수확물을 보관하기 위한 공간이 많았다. 보관공간은 골마루, 안채창고, 장독대창고, 고방이었다. 보관된 수확물을 각 공간에 따라 살펴보면 골마루는 집에서 가장 어둡고 시원한 공간으로 향아리를 두고 계절마다 나는 과실류, 안채창고는 2칸 규모로 된 넓은 곳으로 콩, 깨, 면화, 누에 등과 집의 식량으로 쓰이는 곡식, 그리고 장독대 창고, 고방은 집에서 소비되는 부식물류 등을 보관하였다.(그림18) 이와 관련한 면담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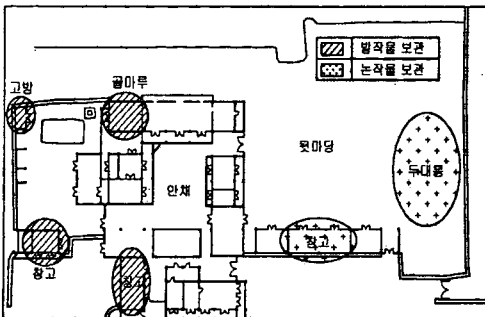


그림 18. 논밭 수확물 보관공간

- 골마루- “과일은 주로 골마루에다 넣어뒀는데 거기가 집에서 어둡기도 하고 시원해서 향아리 같은 것에다가 보관했제. 뒷문쪽이 나무 살창으로 되있었어.

깜깜한 굴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어. 우리도 어머니가 시켜서 아침에 일어나 비자나 밤, 감 같은 것 주워다 거기 넣어 두었제.”(숙부)

- 안채창고- “밭에서 수확한 콩 같은 것 넣어두고. 그때는 집에 식량이 많이 들어가니까 나락도 거기다 많이 넣어두고 그랬제.”(숙부)

- 장독대창고, 고방- “향아리, 도기들이 있어서 음식들 주로 보관하고. 마늘, 양파, 고추 같은 비맛아서 안되는 것들을 넣어두고 그랬어.”(중형)

5-4 안채의 작업공간

논농사는 당주 관할이었지만 밭농사는 안주인 관할로 처분권이 따로 분리되어 있었으므로, 작업 및 보관장소도 논농사와 분리되어 있었다. 안채 내에서 밭농사 연관 작업이 행해졌다. 안채는 작업성격상 뒷마당과 연결이 빈번하였으며 작업량이 많고 분주한 공간이었다. 작업공간은 안마당, 공로, 안대청, 장독대였다. 각 공간에서 행해진 작업을 살펴보면 안마당에서는 주로 작물 건조 작업을, 공로에서는 안주인이 면화나 누에치는 작업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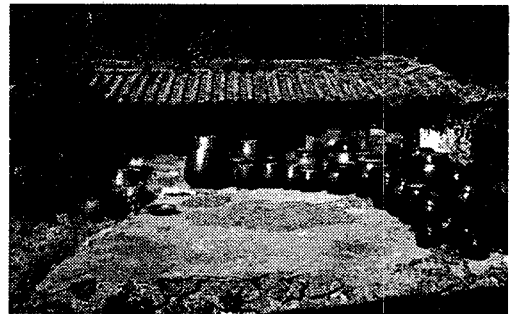


그림 19. 부엌 뒤 장독 마당

직접하였다. 안대청에서는 누에의 실을 뽑는 일이나 감는 일을 했고, 장독대에서는 집에서 소비되는 부식물을 처리하는 작업을 하였다.(그림 19) 이와 관련한 면담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수할 때는 어머니가 추수한 것들을 어디어디다 갖다 놓으라고 뒷마당에서 일꾼들에게 시켰제. 밭농사가 논농사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한 만오천평 정도 됐제. 지금도 앞쪽으로 쪽 밭이 있지만 집 뒤가 다 밭이었어. 콩, 고추, 깨, 면화, 누에, 비자, 감, 밤, 은행 같은 작물 종류도 많고 그랬제. 그때는 어머니가 호미들고 밭에 가서 일은 않지만 집에서 모든 관리를 허셨어”(숙부)

“마당에는 햇빛이 좋으니까 항상 고추, 깨 같은 것 말리고 그랬제.”

“누에치는 일은 직접 밭에 가서서 하시고 했는디 뽕잎도 직접 썰어서 허셨제. 또 누에 실 뽑는 일은 공로 밑에 기계가 있어서 하시고 했제. 근디 지금은 공로가 없고 종손이 화단 만들어 놔제. 그전에는 공로가 있어서 비오면 시끄러웠어. 지붕이 양철판 같은 걸로 되었었응께. 우리 아버님이 만들지 않았나 싶제.”

“실 감으실 때는 더우니까 안대청에서 하셨어. 그때는 어머니가 쉬지 않고 일을 하셨어. 하여간 쉬는 모습을 볼 수 없고 부지런 하셨어.”

“장광에서는 깨도 말리고 비자, 은행 같은 것 손보고 그랬제. 그리고 집에서 음식철라고 마늘이나 양파 같은 것도 다 거기서 했제. 많이씩 나니까 많이 팔기도 허고”(숙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양반집 종부라고 하여 편하게 작업지시만 한 것이 아니었다.

“여자들은 밭에 풀때는 것이 날마다 일이제, 우리 집 사람도 동네 일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해서 손이 많이 상했지.”(종손)

5-5 식사 준비, 제공 공간

농사일에 식사를 준비하여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다. 음식준비는 수십명이 동원되는, 직접 농사일 못지 않은 여자들의 큰 일이었다.

“집안에 논 일 있을 때는 한 끼니씩에 최하30-60명 일꾼들 밥을 했제. 그렇게 큰술으로 밥을 한 술다 니씩 허고, 또 새참도 두 번 쥐야 헌께 큰술로 몇 개씩 죽을 끓여 날라다 주고 했제. 또 저녁에는 일하고 피곤하다고 집에서 밥하지 말고 먹으라고 호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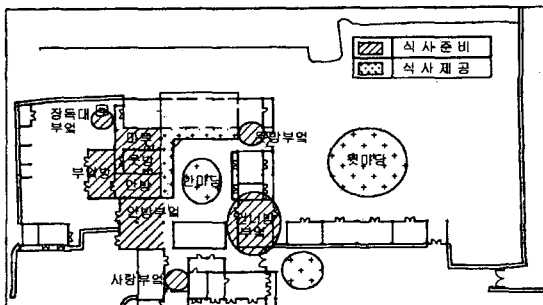


그림 20. 식사준비·제공 공간

구들 밥까지 싸서 보내주고 했제. 그렇게로 한 20-30명 많으면 40명 일할때도 50-60명분 밥을 해뒀제. 그때는 허구헌날 하루종일 밥하는게 일이었제. 호집 식구들이 와서 일을 허드라도 다 일일이 관리하고 내손이 가야 했응께. 남들 보기에는 대갓집 마나님이지만 생각하든 참 기막힌 세상을 살았제.”(종부)

음식만들기는 안방 부엌 뿐 아니라 건너방 부엌, 그리고 아궁이가 있는 못방, 장독간 화덕이 동원되었다. 차리기는 마루, 부엌방에서 했다. 따라서 안방 건너방 두 개의 부엌이 평시 기준으로 본다면 상당히 넓은 셈이다.

-부엌- “그때는 밥할 때 일일이 불을 때서 헌께로 부엌마다 2-3개씩 솥을 걸쳐놓고 다 썼어. 불때서 끓이는 것은 부엌에서 했는디 그때는 솥이 1-2개 가지고는 어림 없었응께. 부엌 한쪽에는 나무 쟁여 놓고. 지금 건너방 창고도 그때는 부엌이었제임”(종형)

-마루- “주로 밥상을 차리거나 물치장으로 쓰였제. 마른 것은 마루에서 만들어서 주고 했제.”

-부엌방- “지금은 불필요해서 없어졌는디 부엌방이 꽤 크게 있었제. 한쪽은 마루로 되어 있고 한쪽은 그냥 땅바닥으로 되어 있었는디 밥청방이라고도 했제. 거기서 여자들은 밥도 먹고 설거지도 허고 했제”(종형)

안채의 마루와 안마당, 뒷마당이 전부 식사 장소가 되었다. 가까운 일가들은 마루에서, 여자들은 부엌방을 사용하였다. (그림20)

-식사공간- “그때는 사람이 많아서 일허다 밥 먹을 때는 사방에서 먹었제. 뒷마당에서 항상 일꾼들이 일을 했응께. 거기다가 밥상을 날라다 주기도 허고. 또 가까운 일가들 중에서도 연배가 어느 정도 된 사람이 일 오면 마루에서 먹었제. 그래도 어른인디 바닥에서 먹으라고 허기가 좀 그렇제.”(숙부)

5-6 노동인의 거주공간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불가능하였다. 녹우당 일을 돕는 노동인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노비였던 사람들과 운씨 일가들로 구성된 마을 사람들이었다. 녹우당의 노비였던 사람들은 신분제 해체 이후에도 토지를 중심으로 한 경제적 관계로 변하여 최근 1970년대까지 존재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한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호집사람들은 말하자면 그전부터 있던 우리집 노비들이였는디 한 20가구 되었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지금의 종손이 없었제. 마을 사람들은 거의 운씨 일가들로 못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큰집 일을 많이 했제. 호집사람들하고 소작인 하고 달랐는디 호집은 집허고 논답을 거져 벌어먹게 해주고 큰집일 있을 때 와서 일허는 사람들이고, 소작인은 경작해서 수확

량에 5:5로 곡수를 받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종형)

“내가 38살때부터 여기 들어와서 살았는디, 그때까지만 해도 호집이 있어 살고 있었제. 6.25 이후로도 그때는 호집, 호지집이라는 것이 주종을 이룬 사이로 있었는데 내가 그들과 협상을 했어. 좋은 세상에 이렇게 얽매어 있지 말고 나가 살으라고. 살림은 따로 생각해 주고 이거를 시켜줬제.” (중손)

기존 노비들은 본가에 소속되어 일을 하는 솔거노비와 각자 밖에서 살림을 따로 나간 외거노비로 구분할 수 있었다. 본가에 소속된 사람들의 거주공간은 남자는 행랑채의 행랑방, 여자는 안채의 안방에 딸린 옷방, 부엌방이었다. 여자는 안주인의 지시에 따라 부엌일이나 청소 등을 하였고, 남자는 당주의 지시에 따라 농사일이나 집안의 잡역을 하였다. 이와 관련한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 어머니가 시집을 때 데리고 온 여자 아랫것이 있었제. 교전비라고 부르는 말하자면 몸종이 있었어. 안방 옷방에 기거했제. 글고 우리집에서 일하던 노비로 밥청방에 한 명이 더 있었어. 안방 심부름도 하고 청소나 빨래같은 일도 하고 했제. 집안일 있을 때 밥하고 음식하고” (종형)

“남자 머슴은 들어 있었는데 행랑채에 행랑방이라고도 하고 머슴방이라고도 하는곳에서 기거했제. 큰머슴 작은머슴이라고 불렀는디 둘이 일하는 것이 달랐제. 큰머슴은 옷청(당주)에서 지시하는데로 주로 농사관리 같은 일을 하고 작은 머슴은 집안일을 주로 했제.”(종형)

그리고 각자의 살림하는 사람들은 본가 앞 20여채의 호집과 문간채에 살았다. 문간채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행랑채와는 달리 본가 내에 있지만 호집, 호지집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녹우당 일을 가까이에서 돕지만, 따로 살림을 하는 반 독립적인 사람들로써 2가구가 살았다. 1가구당 방과 부엌, 측간이 각각 따로 있고, 문간마당이 있어서 각자의 농사작업을 하였다. 사랑대문앞 고살에 있는 문간채 문이 외부에서 출입하는 주 출입문이고, 본가 사랑마당으로 통하는 작은 문이 있었다. 이와 관련한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간채라고 하고 주로 호집 사람이라고 불렀는디 더 가난하고 식구없이 단출한 사람들이 살았어. 근디 그들도 각자 나름대로 따로 살림하고 살았제. 간단하지만 논농사나 밭농사도 짓고 그래서 자유대로 콩, 보리, 고구마 같은 것 자급자족 하고 했제. 집안일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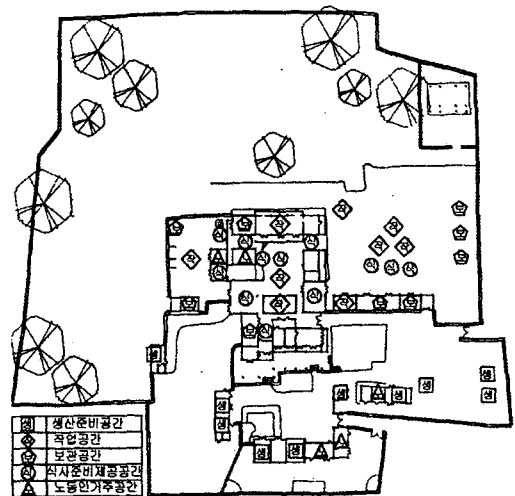


그림21. 농업활동에 사용된 공간

을 때는 와서 일 하고 또 거들 일 있을 때는 거들고. 그래서 지금은 사람이 안사니께 막아서 없지만 그전에는 그들이 따로 출입하는 문이 있었어[문간채문]. 글고 문간마당에 칫간도 다 따로 있고. 칫간은 그전에는 농사지를 때 다 거름으로 쓰니까 밖에서 일하다가도 불일 보려는 자기집 칫간으로 가서 꼭 일을 봤어” (종형)

지금까지 다양한 농업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을 종류별로 요약 표시하면 그림 21과 같다.

6. 본 연구를 통한 기존 연구의 검토

2장에서 학문연구자이지만 외부인으로서 형태만 보고 잘못 붙인 이름과 그에 수반된 건물과 공간의 혼동된 해석을 지적한바 있다. 즉, 대문, 행랑채, 행랑마당 등.

전통 상류주거를 연구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형태적 해석이 주류를 이루고 근자에 유교원리로서 설명하는 연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동서고금 막론하고 형이상학적 이념 자체는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고, 먹고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간과하기 쉽다. 기존 정통 한국건축연구에서 상류주거를 ‘班家’라고 이름붙여서 유교적 신분계급성을 전제로 하여 설명하기 때문에 한계에 이르게 되고 원하지 않아도 사실의 왜곡을 가져오게 된다. 유교원리하에 토지와 노비를 바탕으로 하였던

농업생산의 경영적 차원이 신분제를 지원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집의 바른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집의 안채의 대청은 안마당에 대해 어칸을 가지고 있는 3칸으로 배치되어있다.(그림2, 11, 22). 고 정인국교수의 분류를 따르면 민가형과 구분되는 '경기형'이고, 그후 유교적 의례 규범에 의한 분류로 '상채형' 또는 '대청형'이 된다.²⁴⁾ 외견상 엄숙해 보이는 정형적 배치이다.

김봉렬은 선행연구에서 소위 풍수 중심축선상의 '상징성'에 치중하여 안채의 안대청을 다음과 같이 본다.

특히 안마당 정면을 형성하는 안채 체례청은 그 놓인 위치나 규모로 보아 안대청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제사 때에만 사용하는 의례적 장소이다. 평시에는 항상 닫혀있고, 북서쪽 모퉁이에 놓인 두칸의 '못마루'가 안대청의 역할을 한다.²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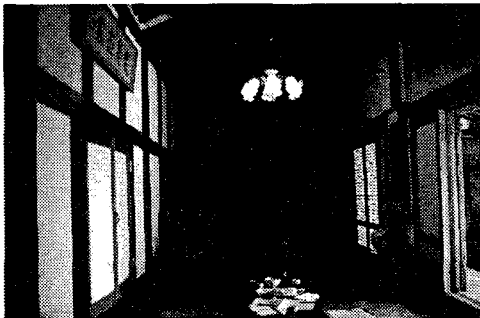


그림 22. 안대청 내부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확인한 바로 안대청은 혼례나 제사를 지낸 의례공간임에 틀림없지만, 한편으로 다용도로 사용된 생활공간이었다. 안종부가 '여름거처'하던 공간이다. 문지방 높이의 평상을 두고 뒷문을 열어놓으면 대나무 발 찬바람이 불어와서 시원하게 여름을 나는 공간이었다. 제상이 놓여있었고 제기 보관 창고도 있었지만 못방 쪽으로 쌀 4가마 들어가는 뒤주를 둔 식량 보관 공간이었다. 바깥손님은 안에 못 들어오는, 그러나 안

어른들을 접대하는 공간이었다. 또한 농사 작업인 누에의 실을 뽑고 감는 일을 한 공간이었다.

안채의 폐쇄된 입구자형 안마당은 엄숙한 의례공간처럼 보이지만 농사 작업에서 안사람들의 발농사 관련 작업공간이었다. 또한 농번기의 일꾼들 밥해 먹는, 마당에 명석깔고 먹거나, 뒷마루에 걸터앉거나, 친척 어른들은 마루에 올라와서 먹는 식사공간이었다. 안채 부엌아래의 쌀벼 보관 공간, 부엌뒤 장광 마당의 요소 요소에 있는 발작물 보관 공간으로 운반하는 동선의 길목이었고, 또 동네 사람들이 와서 거드는 제사 음식 준비 작업공간이었다. 즉, 현재의 관광객으로 가서 보는, 늘 닫혀있는 폐쇄되고 엄숙하고 조용하기만한 의례공간으로 보는 것은 사물의 현재적 해석일 따름이다. 과거에는 온갖 작업이 일어나는, 여러 사람들이 드나들었던 복잡한 공간이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김봉렬이 실질적 안대청으로 지목한 '두칸의 못마루'에 대해 살펴보자. (북서쪽은 마루가 없으므로 북동쪽의 오기인 것으로 보임). 제일 모서리 칸은 '골마루'라 부르고 안방과 연결된 마루는 별다른 이름 없이 그냥 '마루'라고 부른다.

골마루는 비밀창고였다.

"고산께서 쓰시던 보물을 보존해둔 장소였다. 화첩이나 귀중한 것을 넣어두고 자물쇠로 채워두었다. 예전에 사랑채에서 일본 귀객들이 와서 화첩있는줄 아니까 보여달라고 하면 비밀리에 갔다 보이지만 했지 여기는 못들어왔어. 최 측근인 삼촌 (윤영선)이나 나 (윤준식)만 출입했었제. 대청으로 통하는 문은 없고 마루방에서만 출입할수 있도록 되 있었어. 바람 통하도록 나무 살창으로 되어있었어. 갸잡한 굴속 들어가는것 같았제. 어렸을 적에 시원하니까 향아리 같은것 놔두고 밤 같은것 주워서 보관하기도 했어. 골마루는 폐쇄적인 비밀창고 같은 곳이었어."

한편 인접한 마루칸은 주로 그릇 찬장 같은 식기 선반들이 있었고 마른 음식 장만하는 곳으로 사용했다.

"국이나 끓이는 음식은 부엌에서 하고 마른 것, 각종 제찬을 마루에서 만들었제. 지금은 방을 들여 사용하고있다"(중부)

두개의 마루는 하나는 비밀 창고, 다른 하나는

24) 정인국, 「한국건축양식론」1982. 김기주, "조선시대 중기 이후 반가의 공간사용과 평면형식에 미친 가례의 영향" 연세대 박론, 1994. 홍승재,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예제적 체계에 관한 연구" 1992 홍익대 박논.

25) 김봉렬(1996), 앞의 글 215쪽

찬간으로 사용되었는데, 그렇다면 김교수의 소위 '안대청 역할'을 하는 곳은 어디에 따로 있을까?

이를 해석하면 공간의 물적 형태에 치중하여, 경기형, 상체형, 대청형으로 생긴, 풍수 중심축상의 대청마루를 의례 전용공간으로 할당하고 보니 일상공간으로 안대청을 안방 옆의 두칸의 마루로 넘겨짚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학문세계에서 가장 피하여야 할 '소설쓰기'가 되고말았다.

다음으로 안마당이 앞뒤로 지나치게 길쭉하여 비례가 이상한 점에 대하여 보자. 전봉희는 김동현의 선행연구를 통해 중층의 건물(본 논문에서의 '공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안마당 크기 폭 6.95m x 길이 13.15m를 길이 10.25m로 보정하며²⁶⁾ 별도의 口자 안채와 별도의 一자 사랑채일 가능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거주자 면담에 의해, 아래는 절구통이 있는 트인 작업공간이고 위는 물치장인 공로 건물이 1920-30년대에 지었다가 70년대에 헐어버린 현대의 생활편의에 의해 지어진 건물처럼 되어있다. 그러나 현재 약 1:2의 지나친 안마당 비례가, 공로가 있을 때에 약 1:1.5로 전혀 무리가 없게된다. 또 현재 화단 자리인 위치상 내외분리담의 역할을 하는 성격으로 보아, 또 현재 사랑채가 안마당 보다 한 단 낮은 위치에 놓인 것으로 보아, 또 그 건물을 짓기 전의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건물자리에 건물을 복원했을 습관의 연속성으로 보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전봉희의 '별도의 口자 안채와 一자 사랑채 설'을 지지한다.

다음으로 부엌의 크기에 대해서 검토해보자. 전봉희는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안방 및 부속공간을 포함하여 8칸을 1로 놓았을 때 부엌은 0.94에 해당한다"며²⁷⁾ 상류주택의 일반적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았다. 계량연구 자체의 문제이지만 3장의 다양한 활동상 안방의 아랫방, 옷방은 계량에 물론 포함되겠지만, 마루, 골마루 모두를 안방부속공간에 포함하지 않았는가 의문으로 남는다. 또한 이 집은 건너방 정규 부엌과 못방 부엌까지 포함하여 부엌이 세 개 있는, 부엌이 비교적 큰집에 속한다.²⁸⁾ 그런데, 현재 창고로 바뀐, 없어진 과거

의 건너방 부엌을 연구에서 계량하지 않아서 오차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행랑채로 잘못 알려진 문간채에 대하여 보자. 임영배는 별도의 집인 문간채-문간채마당-문간채문을 행랑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다.²⁹⁾

행랑채와 마굿간, 창고 등이 있는 대문채가 사랑채와 마주보고 배치되어있어 사랑마당이 행랑마당의 구실을 일부 겸하고 있는 셈이다.

행랑마당: 대문 가까이 독립적인 문을 두어 행랑마당에 이르게 하여 행랑마당과 사랑마당의 동선을 분리시키며, 내객을 맞이하는 외부와의 접촉공간이 아닌 사역인만이 사용하는 폐쇄적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255쪽)

사랑채 서쪽에 있는 사랑마당은 결코 남쪽에 있는 행랑마당과 겹치지 않는 순수 사랑마당이다. 사랑마당에는 사랑방죽 또는 안방죽이라 부른 관상용 연못이 있었다. 나무 안을 판 물홍통으로 산의 물을 끌어들여 연꽃도 심고 붓어도 키웠었다. 문간채에서는 별도로 독립된 두 집이 살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대문간 들어오기 전에 별도 전용 출입문(문간채문)에 독립된 마당 (문간채마당)이 있었다.(그림2)

7. 논의

다음으로 녹우당 집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자. 경상도 식의 폐쇄된 口자형의 안마당을 가지고 있지만 생활은 훨씬 개방적이었고 실용성에 더 바탕을 두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사랑대문의 높이도 그다지 높지 않으며, 고살의 좁은 폭, 문간채 살림대문이 대문 앞에서 보임, 사랑채 전면의 기능적 서향 목조 차양 설치, 사랑채의 기단의 낮은 높이 등이 전형적 유교질서에서의 양반성의 높임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본 논문에서 본 바와 같이 농업생산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할 때 자연스럽게 공간의 구성이 해석 될 수 있다.

또한 농사작업마당인 뒷마당에 바로 면하여 안채의 건너방(할머니)과 못방(머느리)이 있다는 점

26) 전봉희 (1996) 99쪽

27) 전봉희 (1996) 99쪽

28) 김동현도 종합에서 "부엌의 수가 방에 비해 많다"라고 결

론을 내고있다.(58쪽)

29) 임영배, 앞글 255쪽

이다.(그림23) 물론 건너방 앞의 우물과 연자방아, 디딜방아, 미역창고 등이 있어서 뒷마당이 안마당과 연관이 깊지만, 특히 유교질서상 가장 깊이 폐쇄되어 있어야 할 '일종의 신방, 신부방'인 며느리 거주공간이 뒷마당에 바로 붙어있어서 추수하고 타작할 때의 시끄러운 작업에 사생활 침해가 될 것 같았다.



그림 23. 뒷마당쪽에서 본 안채 (오른쪽: 못방, 왼쪽: 건너방)

“그건 상관없어요, 문을 닫아두죠. 문이 있으되 사람이 있으면 안열어봐요. 뒷마당 사용할 땐 문을 닫혀놓고, 사람 없으면 갑갑한게 통풍으로 문을 활짝 열어놓고.”(중형)

다시 말하면, 녹우당은 양반집이지만 농사집 성격이 더 강하다. 이쯤에서 학계의 고착된 용어처럼 보이는 班家와 民家라는 용어에 대하여 보자. 연구 시조인 고 정인국 교수는 '상류주택'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신영훈은 '살림집'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굳이 민가와 반가의 구분에 구애받지 않는다. 그런데, 아마 민가 연구 권위자인 김홍식이 '민중이 사는 집'으로 民家를 설정하고 그에 대립된 맑시즘 계열의 계급이분법 개념으로 班家(양반집)를 설정하여³⁰⁾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조선 신분계급으로서의 양반과, 토지와 노비를 바탕으로 한 농장적 경영구조를 갖는 지주와, 위탁답을 중심으로한 중가가 합쳐질 때에 비로소 오늘날 史蹟이나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된 조선시대 반가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반가도 얼마든지 많이 있었을 것이며, 특히 조선 후기 경제력을 갖춘 지주급 민가도 얼마든지 나타

난다.³¹⁾ 즉 이분법적인 구분은 대체적으로 볼 때 유효할지 모르지만 자세히 보면 현상의 설명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 녹우당을 '반가', 즉 양반주거라는 이름붙일 때에 유교적 신분질서가 전면으로 나오게 지주적 농업생산성격이 간과되기 쉽다. 이는 여태까지의 시각적 형태중심에서 탈피한 새로운 반가연구가³²⁾ 교과서 규범적인 유교의 禮制的 秩序 규명에 집중되어있는 원인이기도 하다. 쉽게 말하자면, 양반들이 공기먹고 산 것이 아니라, 그들의 힘은 경제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 해석한 녹우당이라는 특수해가 하나의 특수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반가의 농업생산성을 검토할 때에 집을 보다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역사학회 발표시의 질문, 1940년대를 연구시점으로 택함으로써 과거 조선시대를 규명할 수 없다는 한계에 대하여서이다. 농사는 현대화된 日政때의 특수한 상황에 불과하고, 조선시대는 역시 양반성이 강하지 않았을까하는 질문이다. 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다. 건축학에서 양반집의 물적 형태연구를 하는 동안 역사학에서 양반집의 농업성향을 연구하였다. 조선시대 지방의 士族들이 농지를 획득하고 경영하는데에 치중하였고, 또한 사대부들이 農書를 열심히 편찬한 것으로 보아³³⁾ 당시 양반들의 주 관심사는 농업생산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토지와 노비가 결합된 구조를 農莊이라고 하였고, 농장에서 직영과 병작(소작)이 병행되었는데 主家와 가까운 전답은 직영을 하였고 먼 곳은 병작을 하였다.³⁴⁾ 연관된 면담은 다음과 같다.

그때는 소가 재산목록 1호였어요. 머슴 둘 놔두고 직영을 한 100여 두락했어요. 직접 많이 못합니다. 요

31) 지주계층 집을 '민가', 즉 김홍식 표현으로 '민중의 집'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가는 문제이다. 김봉렬은 중간에 '부농주거'라는 용어를 만든다. 「조선후기 한옥 변천에 관한 연구」 1983, 서울대 석논.

32) 그 시작은 건축학이 아닌 인류학의 김광언의 「한국의 주거민속지」에서 상류주거를 '유교의 실천도장'으로 규명한 것으로 본다.

33) 이수진, 「영남사림과의 형성」, 152쪽

34) 김건태, 앞글 3-4쪽. 16세기 이전과 이후 농장의 직영지와 병작지의 비중의 변화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30) 김홍식, 「한국의 민가」, 1992, 35쪽, 50쪽

앞에 마을 가차운데, 먼데는 못하고, 나머지는 전부 소작을 썼어요.(종형)

직영은 노가의 노비들을 동원하여 행하였는데,³⁵⁾ 상당부분의 토지가 직영되었을 것이고 그에 대한 농업경영관리의 총본부가 바로 본 연구에서의 主家인 녹우당이다. 따라서 건축물로서의 양반 집 연구는 농업경영의 측면에서의 분석을 피하여 갈 수는 없을 것이다. 1940년대의 상류주거에서의 거주방식은 신문물 도입으로 약간의 변화가 있었겠지만 큰 틀은 조선시대와 마찬가지로 전통생활이 그대로 유지된 연속선상에 있다고 가정한다.

8. 종합해석

거주자들을 중심에 놓고 전통생활과 공간을 복원한 본 연구를 통하여 조선시대 상류주거 녹우당 건물과 공간은 당시 지배 이념이었던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음은 물론이지만, 실질적 생활 기반이었던 농업경영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첫째, 유교사상으로 볼 때 1) 집 위쪽에 묘소와 사당과 제각이 있고 봉제사가 자손들의 구심적 역할을 한다. 위토답 관리와 제사를 맡은 종가와 그 토지를 소작하는 호집, 일가친척집이 위계적으로 마을 구성을 하고 있고, 마을 사람들이 실제로 제사준비 등의 일을 보조하였다. 2) 가족간의 위계와 역할의 중요도에 따라 사용하는 공간의 위치 규모에 차이가 있었다. 집의 중심에는 대표권과 통솔권을 가진 당주, 안채의 중심에는 안살림권을 가진 안주인이 있었고, 기타 가족구성원은 사랑채와 안채 주변에 위치함으로써 효의 실천과 농업경영의 보조적 역할을 하였다.

둘째, 실질생산의 농업경영 측면으로 볼 때 녹우당의 공간성격이 더 분명히 드러난다. 1) 안채는 외형상 폐쇄적인 형태를 띄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사작업 공간과 노동인들의 식사공간으로 사용되

었던 반개방적 공간이었다. 안채에서 여자들이 농사 작업에 참여함으로써, 안채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적인 공간이 아니라 생활을 담는 동적인 공간이었다. 2) 녹우당의 사랑채는 위엄위주의 공간이라기보다는 당주가 농업활동을 총 관리하기에 적합한 공간이었다. 농사준비 공간이 접해 있고, 작업마당으로 가는 중문-뒷마당문을 감독하게 자리잡고 행랑마당의 퇴비장과도 인접해있다. 3) 호 집은 조선시대 신분종속 관계의 노비들이 경제적 협조적인 관계로 변하여 최근까지 존재하고 있었고, 그중 일부는 행랑채 모양의 문간채에 자리잡고 있었다.

해석의 결과 녹우당 건축공간은 유교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실질적 농업경영에 의하여 유교원리가 일부 약화되거나 상호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녹우당의 특수해 도출은 앞으로 기존 전통상류주거 연구를 수정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후기: 이 논문은 한국건축역사학회 2000 춘계학술발표회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참고문헌

1. 김동현(1969), "윤선도 고택의 조사", 「문화재」 4호, 문화재 관리국,
2. 임영배(1987), "고산의 건축유구", 「고산연구」 1집
3. 전봉희(1995), "해남 녹우당: 윤선도 고택", 「건축과 환경」 3월
4. _____(1996), "해남윤씨가의 주택경영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2권 11호.
5. 김봉렬(1999), 「시대를 담는 그릇」, 월간이상건축
6. _____(1996) "유회에서 실용으로-부용동 원림과 해남 녹우당" 「이상건축」 11월
7. 이항미(1999), "유교사상과 실질생산 측면의 해남 녹우당 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12월.
8. 이희봉, 이항미(2000), "상류전통주거 해남 녹우

35) 안승준, 앞글 28, 46 和會文記를 통하여, 1615년 윤선도가 분배받은 노비는 66명(노32 비34)였고, 1760년 봉제사 전담이 395두락 노비 116(노72 비44), 9대 종손인 윤덕희의 전담이 164두락 노비33(노13 비20)이었다. 이 많은 수의 노비는 직영의 근거가 된다.

- 당 연구” 「환경과학연구」 11권 2호. 중앙대 건설
환경연구소
9. 윤영표(1987), 「녹우당의 가보」
 10. 안승준(1987), “16-18세기 해남 윤씨가의 토지·노비 소유실태와 경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논문
 11. 최원규(1984), “해남윤씨가의 농업경영과 그 변동”, 연세대 석사논문.
 12. 이수건(1980), 「영남사림과의 형성」 영남대
 13. 김건태 (1996), “16-18세기 양반지주층의 농업경영과 농민층의 동향” 성균관대 박사논문,
 14. 전라남도(1930), 「전라남도사정지」
 15. 신영훈(1996), 「윤선도와 보길도」, 조선일보사
 16. _____(1983), 「한국의 살림집」 열화당
 17. 최봉영(1991), “한국인의 가의 실현에 관한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논문
 18. 정인국(1974), 「한국건축양식론」, 일지사
 19. 김광언(1988), 「한국의 주거민속지」 민음사
 20. Spradley, James (1980), *Participant Observation*,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이희봉역(1988), 「참여관찰방법」, 대한교과서
 21. _____(1979), *The Ethnographic Interview*,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Interpretation of the Nok-U-dang, Traditional Upper-Class Mansion in Haenam -with Dweller's Life and Agricultural Production-

Lee, Hee-Bong

(Professor, Chung-Ang University)

Lee, Hyang-Mee

(Doctoral Student, Chosun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has main purpose to understand and interpret the house Nok-U-dang, an upper class built in Chosun dynasty, not by outsider researcher's view but insider dweller's view. To interpret correctly, dweller's everyday life in the space and form is examined on a microscale beyond the physical space and form of the house, main object of architectural history. To understand the present form exactly, the study restore traditional life in past era, 1940s. Main method of restoration is the ethnographic interview, based on cultural anthropology.

Like any other upper-class house, the house has been influenced under ruling Confucian ideology in Chosun dynasty: separation of man's and woman's quarters and hierachical arrangement by generation, and worshipping ceremony for ancestor. However, it is by practical management for agricultural production that every court and building of the Noku-Dang can be explained correctly; preparing seed for sowing, tool storing, preparing and serving meal for laborers, making manure, harvesting, threshing grain, storing grain and so on.

Precedent studies interpreted the house by the Confucian principle too much and made conclusion of dignity and austerity of ritual; woman's quarter, is closed and serene space. However this study shows that the space is semi-opened and composite space by agricultural works. And the Sarangchae, master's quarter, is located properly at visual center to control every agricultural activity.